

40//2' s와 40/2' s를 혼동하면 안 된다.

타샤는 위사에 상당히 굵은 실 또는 인전사(引掬糸, 또는 평행사라고도 하며 2올 또는 3올의 실을 꼬아 합치지 않고 평행하게 나란히 한 실로써 굵은 실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 s를 2올 인전한 것이라면 표기는 40//2' s로 나타낸다. 40/2' s는 40' s는 40' s를 2올 꼬아 만든 합사를 말한다. 40//2' s와 40/2' s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합사를 사용하는 등으로 나타내는 큰 이량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두꺼운 타샤를 타샤 포플린이라고도 부른다. 웨더클로스(weather cloth)는 고급 포플린에 방수가공을 한 것이다. 오일클로스는 옥양목이나 브로드에 수지를 도포하여(코팅가공이라고 한다) 발수성이라던가 매끈함, 광택 등을 부여한 것이다. 포플린류는 옥양목과 더불어 실용적인 옷감이면서 멋스러움이 있다. 얇고 가볍고 부드러워 주로 여름옷감으로 사용하고 시원스러운 실루엣으로써 섬머 엘레강스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로스그레인이라던가 피케이다. 그로스 그레인은 둥근 맛이 있는 크고 딱딱한 이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량은 약간 굵은 실 또는 위사를 2올 인전하여 1올의 위사로써 짠 것이다. 상쾌한 면의 감촉과 입체적인 가로 이량을 가지는 것이 피케이다. 때로는 이량을 보다 높고 딱딱하게 나타내는 심사를 가지고 있다. 물결상의 이량을 가지는 것을 아트 피케라고 부른다.